

도시정책논리에 의한 사회공간적 배제 : 프랑스 ZUS를 사례로

정인철* · 배미애**

Socio-Spatial Exclusion by Urban Policy Dialectic : ZUS in France

In-Chul Jung*, Mi-Ae Bae**

요약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시간 및 공간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정책이 공간상에 미친 영향의 관점에서 전개된 본 연구는 '빈곤'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등장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랑스정부의 도시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해 1996년에 제정된 '도시재활성화법'에 근거한 일종의 빈민지구인 ZUS의 설정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배제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ZUS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미약하여 ZUS 주민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물리적 구역 설정으로 인한 격리감은 오히려 주민의 사회적·심리적 소외와 연계됨으로써 이 지역을 공간적으로 더욱 배제·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ZUS가 지니는 사회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빈곤, 사회적 배제, 도시정책, 도시재활성화법, ZUS, ZRU, ZFU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socio-spatial implication of urban policy dialectic. The urban policies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are definitely related to the spatial situation of his society. In France there have been several kinds of urban policies to meet 'social exclusion' as new concept of poverty. To fix 'ZUS(Zones Urbaines Sensibles)', being based on the '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 of 1996, is one of them. It makes a conclusion in this paper that the purposeful zoning by urban policy to meet social exclusion can lead to deepen them. The situation of social exclusion in ZUS is related to the spatial exclusion by zoning marginal areas. To define the key concepts of 'social exclusion' and 'ZUS' is absolutely need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Key Words : poverty, social exclusion, urban policy, '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 Zones Urbaines Sensibles, Zones de Redynamisation Urbaine, Zones Franches Urbaines

1. 서론

빈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빈곤은 개인 혹은 가족에게 경제적 문

제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 의료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가해지는 생존에 대한 위협이며 사회적으로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제도나 정책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icjung@pusan.ac.kr

**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Busan Geography, Pusan National University), mabae@pusan.ac.kr

을 통하여 각 국가들이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의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빈곤문제에 대한 구조적 성격을 재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빈곤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이 아닌 '사회적 배제'의 개념 속에서 그 특성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사용된 사회적 배제 개념은 집단들을 사회의 주류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종의 메커니즘으로서 빈곤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한계집단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그 현상이 심화되는 사회적 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반하게 되었다. 기존의 빈곤정책이 단순히 물질적, 경제적 결핍현상을 중시하여 이전 분배위주의 소득보장정책을 추구했다면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은 단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 배제 과정에 대한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을 도모한다.

사회지리학에서 빈곤문제는 전통적이면서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빈곤과 공간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지리학적 노력은 최근 사회적 배제 개념을 빈곤의 신 개념으로 새로이 인식하면서 빈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및 공간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사회적 배제 지표를 이용한 사회적 배제의 공간적 분포패턴과 과정을 살펴보거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공간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에 있어 물리적인 공간설정은 공간적 격리를 심화시켜 계층간의 사회적 거리와 마찰을 유발함으로써 설정지역 내의 사회적 차별의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회지리학적 빈곤연구의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개념의 사회적 함의에 도달한 프랑스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공간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공간 요인 및 주요한 다른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역동적이며, 특수한 공간성을 지닌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빈곤을 연구하는 사회과학분야의 학문적 동향이 사회적 배제의 개념으로 시각을 전환한 현 시점에서 도시정책과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사회지리학적 입장에서 논의한 본 연구는 사회지리학 연구에 있어 매우 시의 적절한 새로운 시도로써 보여 질 수 있다.

프랑스정부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자 법적으로 지정한 도시재활성화법을 근거로 설정한 ZUS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우선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개념 정의와 두 개념 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즉 빈곤 및 사회적 배제극복정책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도시재활성화법에 근거한 ZUS 설정과정과 의의, 그리고 ZUS의 지리적 분포와 ZUS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회경제적·인구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사회적 배제의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공간분리와 사회적 배제와의 인과관계를 정책시행 이후 ZUS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배제가 형성되고 심화되는 메커니즘을 정책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공간적 불이익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2.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노력

1) 빈곤의 신 개념 : 사회적 배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일정 사회가 속한 시대와 장소는 사회의 다양한 속성을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사회가 시대 및 공간의 변화와 함께 그 성격이 바뀐다는 사실, 그것도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문제로서 '빈곤'의 속성을 결정짓는 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빈곤'을 정태적 현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빈곤을 단순히 경제적 원인에 의한 '물질적 자원의 결핍 또는 부족'이

라고 파악하는 기존의 빈곤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로 바라봄으로써 빈곤의 다차원성과 동태적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각이 오늘날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빈곤은 과거 도시민 대다수가 빈곤했던 보편적 내지 일과성 빈곤의 틀에서 벗어나 특정 소수에게 빈곤이 집중되고 고착화되는 특수적 내지 구조적 빈곤의 성격을 띤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소득의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고 계층 간 사회이동을 둔화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결핍의 차원을 넘어 빈곤층의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소외로 이어진다. 현대 사회의 빈곤의 이러한 특성을 사회문제가 지니는 시·공간적 차원을 고려하여 재조명한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빈곤'이라는 용어를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그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빈곤 현상을 사회적 변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즉 빈곤의 동태적 성격'과 '경제적 결핍'이 아닌 빈곤이 기제가 되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주목하고자 했다.²⁾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은 196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생겨났다.³⁾ 당시 이 개념은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도 전혀 받지 못하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었다. 역사적으로 '시민권'이나 '사회통합'의 가치를 중시해 온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의 약화 내지 단절이라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무력한 존재로 소외되는 것은 이상적인 사회통합을 해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인식되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사회적 배제'에 관한 프랑스의 담론은 빈곤문제 뿐 아니라 장기실업, 도시문제, 장애인문제, 에이즈, 인종차별주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을 포함하고 있다(신명호, 2004).

다양한 차원의 불이익으로서 사회적 배제는 어떤 사회의 주류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나타내며 이러한 불이익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사

회적 배제는 한 개인이나 집단을 분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으로 체계화된 용어로서 전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배제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가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배제의 주체와 객체가 결코 인격적이지는 않다. 즉, 중산층이 빈곤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에 의해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경제적·정치적·문화적으로 온전한 참여의 기회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겪는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은 사회의 중심과정에서 떨어져 있는 인구집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윤성호, 2005a).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사회적 배제는 근본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또한 구조의 변화는 구조 내의 집단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집단들 간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구성 집단들 간의 사회적 경계는 '사회공간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사회적 장애가 공간적 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지니고 이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주거지 격리와 같은 물리적인 경계의 설정은 사회적 배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판단은 그가 속한 집단 범주의 지각을 통해 형성된다. 그리고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은 왜곡된 판단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러한 범주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인 다수집단보다 특정한 성격을 지닌 소수집단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김혜숙, 1999). 이런 경우의 도적으로 구획된 경계 내의 상황이 열악하다면 범주화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인식에 대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량주거환경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물론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고 대략 그 공간적 범위를 설정할 수 있지만 경계를 지었을 때의 의미와는 다르다.

경계설정은 경계 내 지역과 인접지역간의 물리적인 의미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분리됨을 뜻한다. 이는 경계 지역의 계층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러한 물리적·사회적 경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경계구분으로 인한 범주화는 경계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에 의거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외부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사회적 배제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열악한 지역에 대한 인위적인 격리를 통한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은 크게 공간적으로 격리됨으로써 발생하는 외부의 낙인과 빈곤층 거주지의 근린환경이 거주자들의 삶의 기회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계지역 내 거주자들의 범주화를 용이하게 하여 낙인형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한번 부여된 낙인은 물리적인 격리를 통하여 더욱 심화된 편견과 차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더욱이 장애인, 실업자 등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집단화하여 공간적으로 격리하면 그 가시성⁶⁾이 증가하여 편견과 차별이 강화될 수 있다. 실제로 공간적 격리는 집단차별의 한 차원으로서 사회적 거리와 적대감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차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Silver(1994)가 제시한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기제⁷⁾ 중 유대패러다임에 의하면 이웃이나 지역사회는 중간계도로 작용하여 전체 사회구성원들을 보다 넓은 사회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ZUS의 설정은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가 공간성과 연계됨으로써 그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정책

사회적 배제는 집단들을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종의 메커니즘으로서 빈곤문제와 직결되고 여러사회문제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개인과 집단,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 이르는 다원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박병현·최선미, 2001). 1960년대부터 사용된 사회적 배제 개념은 이후의 실업 및 빈곤문제의 심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는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려는 정책적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빈곤을 물질적인 양

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로 보는 관점은 특히 최근 여러 나라의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⁶⁾ 이는 경제적 빈민을 대상으로 해 왔던 기존의 빈곤정책은 이제 한계성을 지니며 사회적 배제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빈곤정책이 의의를 가지는 시점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

1960년대에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지금과는 달리 경제적인 발전을 통한 분배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 인구집단의 생존현상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관심은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 일반적 복지수혜집단과 일부 근로자 집단 및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집단으로 대표되는 소외집단간의 괴리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적 배제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나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은 한계집단에 대한 노동유인정책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1970년대 이후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부작용의 문제로서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인식된다.⁷⁾ 사회적 배제가 사회의 일부 집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 이후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을 통합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변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프랑스는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공식적인 사회적 용어로 사용한 최초의 국가이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가 국가정책과 직결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사회적 배제에 대한 오랜 공론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서 1988년의 최저생활보장제도(Revenu Minimum d'Insertion)⁸⁾ 1996년의 도시재활성화법(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 1998년의 '사회적 배제극복에 관한 법(D'orientation relative á la lutte les exclusions)⁹⁾,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2001년 사회당 정부의 후속정책 등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를 위한 법과 정책은 고용 및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의 정반적인 분야에 걸쳐 배제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배제집단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이

들 집단을 정상사회집단으로 편입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책이 지니는 공간적 함의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를 위한 극복정책이 공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의 일환인 1996년의 도시재활성화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의 제정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설정된 사회적 배제 극복의 특별대상지역인 ZUS의 성격을 파악하고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과 공간간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관점이다.

3. 프랑스 ZUS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적 배제와 도시재활성화정책 - ZUS 설정과 정과 의의

1980년 이후 프랑스 정부는 구조적 실업의 증가, 도시 거주분화의 심화, 탈정치화, 탈 노동조합, 빈민지역의 폭력 증가 등 많은 도시사회문제에 직면하였다 (Sauvadet, 2005).¹⁰⁾ 이와 같이 프랑스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 중 대부분은 프랑스의 일부 도시지역, 즉 대도시 근교 도시빈민들이 밀집한 아주 열악한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사회적 배제의 상황 속에서 높은 실업률,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에 대한 낙인으로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의 빈곤 및 소외, 그리고 주거분화에 근거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7년에서 1981년 사이에 행해진 주거재활성화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사회통합을 모색하였다. 1981년의 Vaux-en-Velin지역의 폭동사건을 계기로 정책적 시도는 본격화되어 이후 도시사회개발의 전체 영역으로 확대되었다(DIV, 2004a). 1996년에 제정된 도시재활성화법(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¹¹⁾은 이와 같은 정책적 시도가 구체화된 것이며 프랑스 정부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바탕으로 시행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ZUS(Zones Urbaines Sensibles)¹²⁾의 설정으로서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이 사회적 배제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 '대단지 서민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주거와 고용간의 불균형을 겪는' 751개 지역이 ZUS로 설정되었다. ZUS의 설정 과정을 살펴보면 프랑스 정부는 1996년 지방정부와의 협의 하에 1,300개의 ZUS 후보지역을 우선 선정하였다. 그리고 25세 미만 인구비율, 총인구, 해당 지역의 담세능력, 중졸이하 학력자 비율을 변수로 하여 각 후보지역의 종합배제지수(Indice Synthétique D'exclusion)¹³⁾를 측정한 뒤 지수점수가 높은 751개 지역을 ZUS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ZUS 중 지수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410개 지역을 ZRU(Zones de Redynamisation Urbaine)로, 가장 지수가 높은 44개 지역을 ZFU(Zones Franches Urbaines)로 설정하였다.¹⁴⁾ ZFU의 설정은 단순히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자본의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ZFU는 인구가 10,000명 이상, 국가평균 대비 25% 이상의 실업률, 총 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비율이 36%이상, 29%이상의 중졸 미만 학력자 비율이, 570 유로 이하의 1인당 담세능력 등으로 특징지어 지는 지역이다(Allemand, 2006). 프랑스 정부는 2004년에 41개의 ZFU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2005년 11월 소요사태 이후 다시 15개 지역을 추가하여 2006년에 지정하였다.

도시재활성화법에 의해 지정된 ZUS, ZRU, ZFU에 프랑스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크게 직업세를 선별적으로 감면해주는 세제혜택, 사회보장비의 기업분담분과 교통비에 대한 면제 혜택, 고용창출과 창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혜택 등으로 요약된다. 그 밖에 상가 내 리모델링 및 재건축 지원,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원, 주거관련 혜택 등이 있다. ZUS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청년실업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50명 이하 종업원을 가진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사업세를 5년간 일정 부분 면제 받는다. 면제 혜택의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택적으로 결정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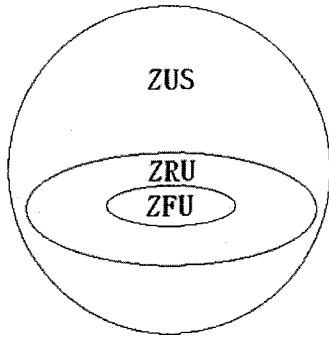


그림 1. ZUS의 유형별 계층 관계

면제 금액은 중앙정부가 별도로 보조하지는 않는다. ZRU는 ZUS에 주어지는 혜택에 참가하여 5년간 직업세를 면제 받는다. 사회보장 부담금은 종업원 50명인 기업에 한해 1년간 완전히 면제된다. 그리고 가내공업 경영자, 소규모 상업 및 서비스업 경영자, 독립적인 고급기술자는 5년간 개인 의료보험료를 면제받는다. ZFU에 입주하는 기업은 EU 기준에 의해 자동차제조업, 조선업, 화학섬유공업, 제철공업, 유통업은 제외되며 5년간 직업세, 건물 분 토지세, 소득세, 사회보장성분담금(사회보장·주거비보장·교통비)을 면제 받는다(www.legifrance.gouv.fr 참조).

2) ZUS의 지리적 분포와 인구특성

1999년 ZUS에는 약 467만 명이 거주하였으며 이는 프랑스전체 인구의 약 8.2%에 해당한다(표 1 참조). 각 ZUS의 인구 평균수는 약 6,224명이나, 지역별로 인구 편차가 심해 최소 333명에서 최대 50,553명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ZUS의 2/3에 해당하는 지역이 2,000~10,000명 정도의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다(DIV, 2004b). ZUS는 수도권인 Ile-de-France에 157개로서 가장 많이 분포하며, Nord-Pas-de-Calais(73개), Rhône-Alpes(64개), Provence-Alpes-Côte d'Azur(48개) 등의 순으로 Paris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Marseille, Lyon, Strasbourg, Bordeaux, Metz-Nancy, Lille, Nantes 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5개 이상의 ZUS를 포함하는 도시는 Marseille(12개), Paris(9개), Strasbourg(8개), Mulhouse(6개),

Bordeaux · Lille · Lyon · Metz · Montpellier · Nantes · Reims · Rennes(각 5개) 등이다. 85개의 ZFU에는 약 143만 명이 거주하며 Limousin, Bretagne를 제외한 프랑스 모든 도시지역에 설정되어 있다(그림 2). ZUS와 마찬가지로 ile-de-France(23개), Nord-Pasde-Calais(7개), Rhône-Alpes(6개) 등 세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ZUS, ZRU, 그리고 ZFU 주민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프랑스 전체도시지역에 비하여 1인 가구 비중은 다소 낮고 가구당 평균인구도 거의 유사하나 가족수가 6인 이상이 되는 대규모 가족가구는 전체평균의 약 두 배에 달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전체평균과 비교하여 ZUS 인구의 연령대는 다소 낮은 현상을 나타낸다. 25세 이하 인구수에 비하여 60세 이상 인구비중은 다소 낮은 편이다. 프랑스도시지역전체에서 외국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불과하나 ZUS에서의 비중은 15.8%로 거의 두 배에 달한다. ZUS의 노동자 가구 비율 역시 도시평균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데 전체가구의 절반 정도가 노동자가구에 해당한다. 외국인 가구비율과 노동자 가구비율은 ZUS에 비해 좀더 열악한 환경을 지닌 ZRU와 ZFU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학생수는 도시지역전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학위를 받은 경우는 도시지역전체가 21.6%에 비하여 ZUS는 12.5%에 불과하다. 무학위비율은 ZRU와 ZFU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높은 무학위 비율은 학업경험은 있으나 학업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자격증을 갖지 못함으로써 구직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해 결국 실직에 이르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된다. ZUS의 인구의 18.9%가 실직상태에 있으며 이 수치는 프랑스 전체도시지역 11.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ZFU의 실직자수는 프랑스도시평균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남성실직자에 비해 여성실직자수가 많은 편이며 특히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실직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있는 남성 중 실직자가 많다는 점은 ZUS의 높은 가구빈곤율과도 연관된다. 프랑스의 다른 도시지역들과 비교하여 ZUS의 높은 실직율은 이 지역의 높은 비중의 외국 인가구 및 노동자가구, 그리고 낮은 학력 등과 연계되

표 1. 프랑스의 지역별 ZUS·ZRU 비중

지역	ZUS(%)	ZRU(%)
프랑스전체	8.2	5.7
Alsace	8.9	5.4
Aquitaine	5.2	4.3
Auvergne	5.9	2.4
Basse-Normandie	3.7	3.0
Bourgogne	7.7	5.4
Bretagne	3.8	1.7
Centre	6.1	4.8
Champagne-Ardenne	13.2	10.3
Corse	12.7	0.0
Franche-Comte	9.1	7.2
Haute-Normandie	8.8	7.8
Ile-de-France	12.9	7.3
Languedoc-Roussillon	7.1	5.3
Limousin	2.7	2.1
Lorraine	7.8	6.5
Midi-Pyrenees	3.1	2.1
Nord-Pas-de Calais	10.9	10.1
Pays de Loire	5.6	4.3
Picardie	8.4	7.3
Poitou-Charentes	4.7	3.3
Provence-Alpes-Cote d'Azur	9.4	7.1
Rhone-Alpes	7.5	4.4

출처: INSEE PREMIERE, N573, Avril 1998

참조: 통계수치는 각 지역별 전체인구에 대한 백분율임

어 결과적으로 ZUS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수 있다.

위와 같은 ZUS의 인구적 특성에 따르면 ZUS는 저소득층, 이민자, 저학력자 등 사회적으로 이미 배제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ZUS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정도는 이와 같은 소득, 학력, 고용상태 등과 같은 개인적 사유가 집합됨으로써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ZUS의 주거환경은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 ZUS의 주민구성이 근린관계와 주거환경을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ZUS 주민들의 이와 같은 행태가 ZUS지역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공간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ZUS 주민들의 심리적 위축, 빈번한 반사회적 행동, 차별경험 등은 모두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결과이면서 사회적 관계를 제약

하고 참여를 저하시키는 등 또 다른 사회공간적 배제를 낳을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4. 도시정책논리와 공간적 함의

1) ZUS 설정 이후의 변화

프랑스의 각 지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인구에 대해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서 도시재활성화법에 근거한 ZUS 설정이 갖는 실효성은 ZUS의 사회적 배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가하는 문제와 결부된다. ZUS 설정에 대한 평가는 프랑스의 회(Grosdidier, 2003)와 ZUS 관찰기구(ONZ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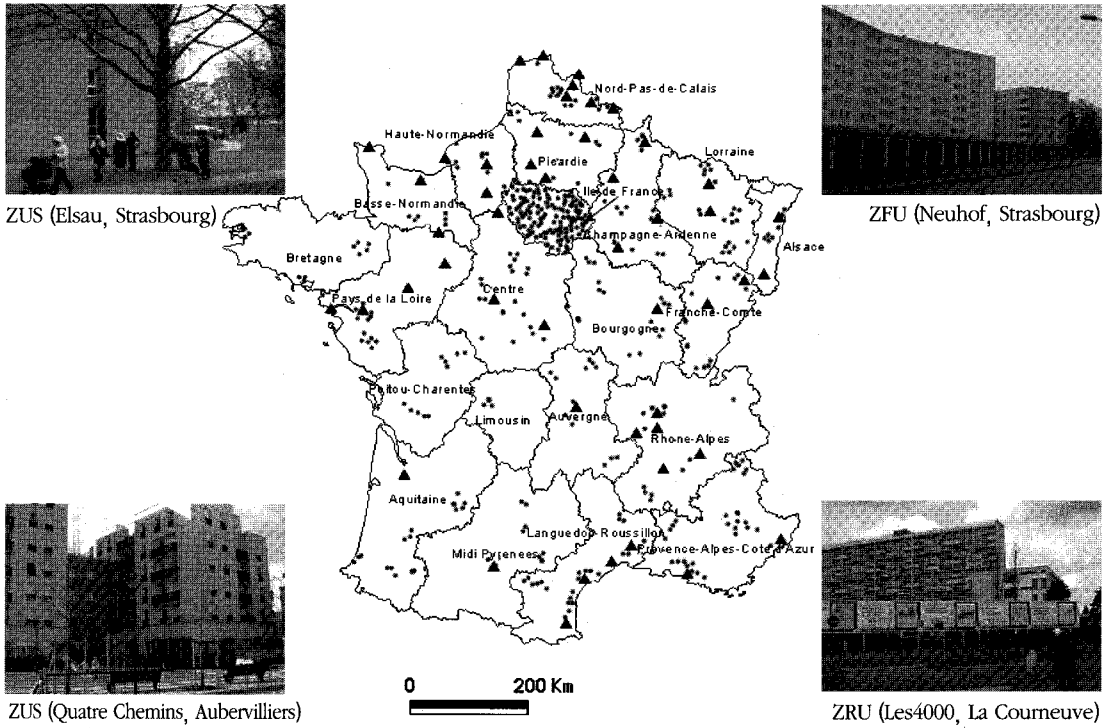


그림 2. ZUS(▲는 ZFU)의 지리적 분포와 예(1999)

표 2. ZUS의 인구 특성

(%)

	구분	ZUS	ZRU	ZFU	프랑스도시평균
가구 및 인구	1인가구	26.8	24.6	23.2	30.6
	6인이상가구	7.5	8.8	10.5	3.1
	가구당평균인구	2.8	2.9	3.1	2.5
	편부모가구	18.6	18.9	18.8	12.4
	25세이하인구	43.0	44.8	46.8	34.7
	60세이상인구	11.9	11.2	9.8	18.1
	외국인가구	15.8	15.8	18.7	8.1
	노동자가구	50.6	50.6	54.9	33.2
학력	15-24세학생수	52.8	52.8	52.1	60.9
	15-24세무학위자	36.7	38.3	39.7	27.3
	15-24세학위자	12.5	11.3	10.7	21.6
	15세이상무학위자	39.3	40.9	42.2	26.8
	15세이상학위자	14.2	12.6	12.0	26.2
실직	15-59세남성실업자	15.4	16.6	17.0	7.9
	15-59세여성실업자	23.5	25.8	27.0	10.4
	15-24세남성실업자	24.1	25.4	26.3	17.2
	15-24세여성실업자	33.5	35.6	36.1	24.7
	총실업자	18.9	20.6	21.3	11.6

출처 : Recensement de la Population, 1990, INSEE

Observatoire National des Zones Urbaines Sensibles)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¹⁵⁾ 2004년부터 2006년에 이르는 평가보고서(ONZUS, 2004; 2005; 2006)를 토대로 ZUS 설정이 과연 이 지역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인구의 속성은 그가 지닌 사회경제적 내지 신체 내지 심리적 특성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특성이 한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하거나 열악하다면 배제의 주체와 객체의 심리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구나 열등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거주한다면 개별적 배제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 배제 내지는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차별적 인식, 즉 공간에 대한 배제로까지 이어진다. 더구나 열등한 집단을 경계를 통하여 공간적으로 범주화시키거나 구획화하면 해당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 사이의 성격이 명확해지며 각각 공간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은 더욱 명확해진다.

1996년 ZUS 설정 이후 현재까지 ZUS 주민의 인구조·경제적 특성의 변화는 이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정책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혹은 사회적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는지와 연관하여 정책이 지니는 공간적 이익과 불이익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다.

(1) 인구 및 가구

1996년 ZUS 설정 당시 이 지역의 인구특성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외국인 및 이민자의 비중이 프랑스의 다른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닌다. 19세 이하 청소년 인구비중이 높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구 당 자녀수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40세 이상 인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편부모 가구 비율은 프랑스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이는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이 프랑스 전체 평균보다 세 배 정도 높으며 ZUS 거주자의 약 20%가 이

민자로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민자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EU국가들에 비해 NON-EU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많다. 가구의 특성은 프랑스도시전체와 비교했을 때 편부모가구, 외국인 및 이민자 가구, 노동자가구, 그리고 다인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림 3은 1999년 이후 2005년까지 ZUS와 프랑스도시전체간의 편부모가구와 외국인가구의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 3의 편부모가구의 경우 약 13% 정도로 유지하면서 프랑스 전체도시의 변화는 매우 미미한 반면 ZUS의 경우 가구 비율이 매우 높으면서 1999년에 비해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외국인가구의 비율은 프랑스전체도시와 비교하여 매우 높으며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나 ZUS에서는 반대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5년의 경우에도 ZUS의 외국인과 이민자비율은 각각 16.5%와 18.3%로서 프랑스도시평균 5.6%와 7.4%와 비교하면 거의 세 배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ONZUS, 2005). 그림 4의 가구원 수에 있어서도 4인가구와 6인가구 등 다인가구의 비율은 프랑스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인가구를 기준하였을 때 그 수치는 프랑스도시평균의 4배에 이른다.

(2) 경제적 환경

ZUS 설정의 부작용은 이 지역의 높은 실업률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는 1999년 이후 2005년까지 ZUS의 실업률 변화를 프랑스도시전체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총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모두 프랑스 도시전체평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짐을 알 수 있다. 1999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실업률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실업률 감소를 계획했던 ZUS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청년인구의 비중이 높은 ZUS에서 청년실업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다고 정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의 변화가 매우 미미한 프랑스 전체도시지역과 비교한다면 실업률의 둔화를 기대한 초기 정책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20.7%가 실업자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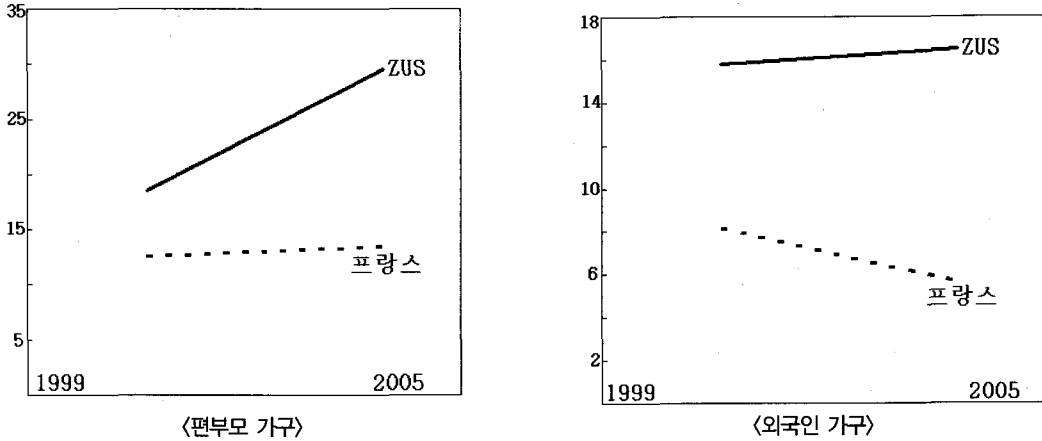


그림 3. 편부모 및 외국인 가구의 변화

출처 : ONZUS, 2006 / L'EXPRESS du Mercredi 23, Novembr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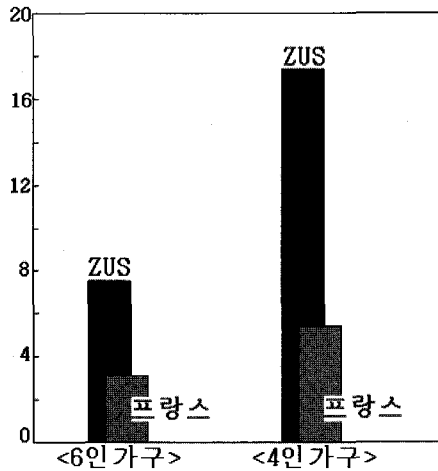


그림 4. ZUS의 다인가구 비중

출처 : ONZUS, 2004 / L'EXPRESS du 23 Novembre 2005

참조 : 6인가구는 1999년, 4인가구는 2005년 자료임.

도시전체의 평균에 거의 두 배에 이르며 특히 15~24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음으로써 이는 청소년 도시폭력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취업자 대부분은 서비스, 판매, 아파트 관리인, 식당 종업원 등 하급의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며, 육체노동자 비율이 도시전체 평균보다 높다. 특히 비숙련노동자, 가내공업,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은 도시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Pellegrini, 2005). ZUS의 계층유형을 서로 비교를 했을 때 ZUS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세

부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ZUS전체 실업률은 가장 실업률이 높은 ZRU나 그 뒤를 따르는 ZFU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이다(그림 6 참조).

ZUS의 이와 같은 높은 실업률과 지속성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과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외국인과 이민자가 프랑스에서 실제로 직업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Bataille, 1997). 따라서 이 지역 고학력자 실업률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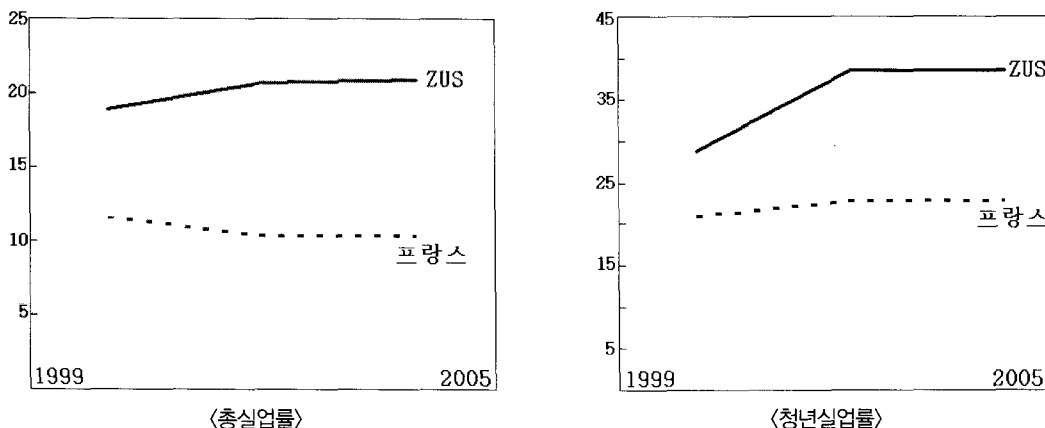


그림 5. ZUS의 실업률 변화(%)

출처 : Recensement de la Population, 1990, INSEE / L'EXPRESS du Mercredi 23, Novembr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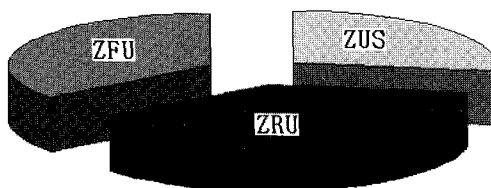


그림 6. ZUS 계층유형별 실업률(2004년)

출처 : ONZUS, 2005

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둘째, 경제적 취약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불리하다. ZUS 거주자 중 자동차나 운전면허증을 소유하지 않는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으므로 고용 수요와 공급 간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한계점을 지니므로 직업을 구하는 데 불리하다(Gobillon et Selod, 2002). 이와 같은 물리적 거리의 제한뿐 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의 부재나 고용에 대한 정보부족 등 사회적 거리의 한계 등도 직업을 구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Fitoussi and al., 2004). 넷째, 거주 지역의 평판에 의한 노동시장의 차별로서(Amorin, 2002; Boutang, 2006), 특정 국적의 출신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또한 이 지역의 불리한 사회적 평판 역시 직업을 구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실제 실업자의 대부분이 이민자로서 동일한 학력이라도 이 지역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이러한 요인에 일부 기인한다. 다섯째, 낮은

학력과 학업성취도 역시 높은 실업률의 주요 원인이다. ZUS에서 중졸 미만의 학력자는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1.8배나 되며 6학년 낙제 비율도 도시전체평균 8.0%에 비해 2.6%가 더 높은 10.6%를 나타내는 등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Pecheux, 2004).

(3) 생활환경

ZUS 주민의 소득수준을 빈곤·검소·중간·안락의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표 3), '빈곤' 수준에 해당하는 비중이 43%로 ZUS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2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의 '검소' 수준 역시 30%로 나머지 도시지역의 21%에 비해 높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간' 수준과 '안락' 수준의 경우도 반대로 프랑스도시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종합하여 보면 전체 ZUS 주민

표 3. ZUS 주민의 생활수준 (%)

유형	ZUS	프랑스도시평균
빈곤	43.0	21.0
검소	30.0	21.0
중간	17.0	25.0
안락	10.0	32.0

출처 : ONZUS, 2004; 2005 / www.lexpress.fr

의 약 73%가 다소 수준차이는 있으나 빈곤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며 나머지 27%정도만 빈곤을 탈피하여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1년을 기준하여 프랑스 국민이 1인당 월 1,235유로를 소비한데 비해 ZUS 주민은 월 918유로만 소비하였다는 사실은 ZUS의 빈곤상황을 단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L'essentiel, 2004).

ZUS 주민의 건강수준은 프랑스의 나머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량한 편이다. 2002년 10월에서 2003년 9월에 걸쳐 ZUS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는 표 4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ZUS 주민의 32%가 건강이 불량한 상태이며 이는 ZUS 이외의 지역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특히 80세 이상인구의 69%가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냈다. 여성 만성질환자의 비중은 44%로서 매우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남성 만성질환은 ZUS 외 지역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내는 데, 이는 ZUS의 인구구성에서 청장년층에 비해 만성질환의 확률이 높은 노인인구의 비중이 낮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인구의 비중 또한 ZUS로

설정되지 않은 프랑스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서 여성이나 남성인구의 약 1/4 정도가 장애 상태에 처해 있다.

2005년 현재 거주환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비율은 19.9%로 프랑스도시평균의 약 1/3 정도로 매우 낮으며, 이와는 달리 서민임대주택비율은 61.3%로서 도시평균의 약 세 배에 이른다. 소음과 치안문제 등 외부적 환경요인은 도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아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고 사실상 치안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ZUS의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주민의 76%와 55%가 각각 자신의 주거지와 거주구역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하였다(ONZUS, Rapport, 2006). 2005년 인구 1,000명당 평균범죄율이 프랑스도시평균의 경우 1.79%이나 ZUS는 거의 1.5배에 해당하는 2.47%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웃 내지 교통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매우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의 주민들의 비행이나 무례한 행동과도 연관된다. 주민 스스로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

표 4. ZUS 주민의 건강수준 (%)

건강수준	ZUS			ZUS 외 지역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건강불량	36	28	32	29	22	26
만성질환	44	35	40	43	37	41
장애상태	25	21	23	21	18	20

출처 : <Sante> 2002-2003, INSEE

표 5. ZUS 주민의 주거 환경

(%)

구분		ZUS	프랑스도시평균
주택소유상태인구	자가주택	19.9	44.8
	서민임대주택	61.3	22.1
거주환경	치안부족	38.0	17.0
	이웃소음	48.2	27.0
	교통소음	32.3	28.9
	대기오염	41.9	34.7
	낙후된 시설	56.2	24.4
	비행 및 무례	62.7	31.1
	범죄율	2.47	1.79
	낮은 명성 및 나쁜 이미지	59.9	13.7
	문화시설이용(매달1회이상)	13.0	15.0
부대서비스	체육시설이용(매달1회이상)	7.0	6.0
	운동하지 않는 인구	68.0	51.0
	탁아소이용	4.0	23.0

출처 : ONZUS, 2004; 2005; 2006 / www.lexpress.fr

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프랑스 전체도시평균에 비해 거의 두 배에 이른다. 대기오염도 다른 지역보다 높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거주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나쁘며 이는 이 지역에 대한 매우 낮은 명성과도 연관된다. 표 5에 의하면 프랑스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보다 ZUS에 거주하는 주민은 4배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받고 있다. 반면 문화 및 편의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시설 이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탁아소이용 비율은 4%로서 매우 낮은데 이와 같은 현상은 ZUS의 전반적인 빈곤으로 인하여 지불능력의 부족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이민자의 문화적 전통 등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ZUS설정과 사회공간적 배제

ZUS는 저소득층, 장애인, 유색인종 등 사회적으로 한번 배제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며 ZUS의 설정은 정책을 통하여 이 지역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서 ZUS의 주거환경은 ZUS 주민들의 행태적 속성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ZUS의 주민구성은 근린관계와 주거환경을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ZUS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혹은 통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ZUS 주민들의 심리적 위축, 빈번한 반사회적 행동, 차별경험 등은 모두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결과이면서 사회적 관계를 제약하고 참여를 저하시키는 등 또 다른 배제를 낳을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타 지역으로부터 사회적 배제의 상황에 있는 아주 열악한 거주지역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은 '도시재활성화법'에 기초한 ZUS의 설정으로 귀착되었다(그림 7 참조). ZUS의 설정을 통하여 주민이 지니는 배제적 속성을 변화시켜 ZUS를 사회적 배제의 대상지역으로부터 탈피하게 하여 프랑스 전체 사회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정책이 그 실효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하였다면 ZUS에서 배제적 속성의 고착화와 더불어 정책에 의해 구획되어진 'ZUS'라는 특정 지역으로의 부정적인 인식은 ZUS에서 사회적 배제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1996년 설정 이후 ZUS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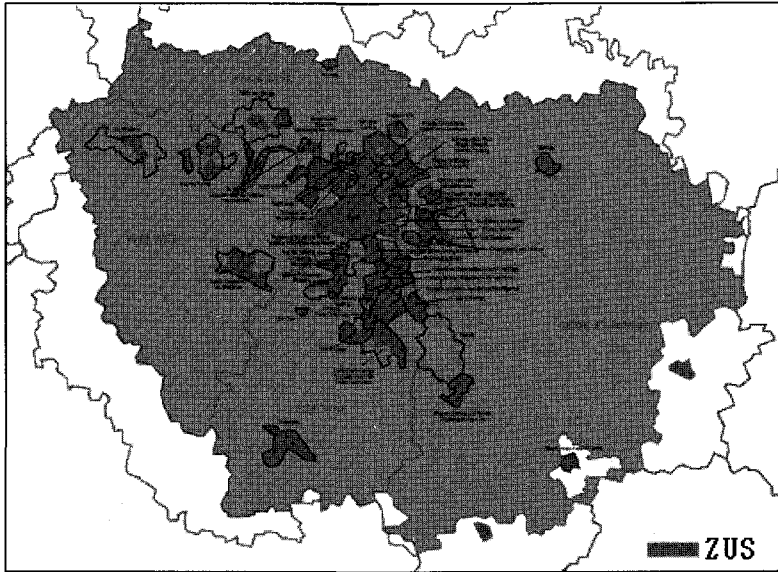


그림 7. ZUS 설정의 예 : Ile de France

출처 : DIV-INSEE, sig.ville.gouv.fr

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ZUS 주민의 속성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거주환경 등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프랑스도시평균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열악한 상황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주로 이민자나 편부모 및 다인가구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특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학력구성에 있어서도 향상된 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경제적으로는 감세 등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에 실패하여 총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에서 높은 실업률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실업률은 ZUS주민의 대부분을 '빈곤' 상태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거환경 또한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주민이 서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잦은 소음, 대기오염, 낙후된 시설, 주민의 비행 및 무례한 행동, 높은 범죄율 등은 ZUS 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불량거주지역으로 인지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배제는 해소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ZUS를 더욱 배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ZUS 설정은 특정지역을 경계 지음으로서 ZUS가 지니는 인구의 특성이나 거주환경의 정체성을 더욱 명백히 인식시킴으로써 ZUS에 대한 낙

인화와 더불어 결과적으로 사회공간적 배제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ZUS는 선정단계에서 이미 사회적 배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ZUS의 사회적 배제는 구획화(zoning), 경계화(defining), 범주화(categorizing), 낙인화(stigmatizing)의 4단계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8 참조). 첫째, 구획화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주거와 고용간의 불균형을 겪는 지역을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대상 지역인 ZUS로 설정하는 단계이다. 프랑스 전역에서 751개 지역이 설정되었다. 설정된 지역의 주민은 주로 외국인, 실직자 등 이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주민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경계화는 ZUS로 설정되지 않은 다소 양호한 거주환경을 지닌 프랑스의 다른 지역과 ZUS가 구분되는 단계로서 ZUS만이 지니는 경제적·사회적·인구학적 특성 등 내부성격이 뚜렷하게 노출되는 단계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속성은 빈곤 및 소외로 성격지어지는 한계집단으로 표현되고 인식된다. 이와 같은 ZUS의 범주에 대한 선행지식을 기준으로 한 부정적이면서 차별적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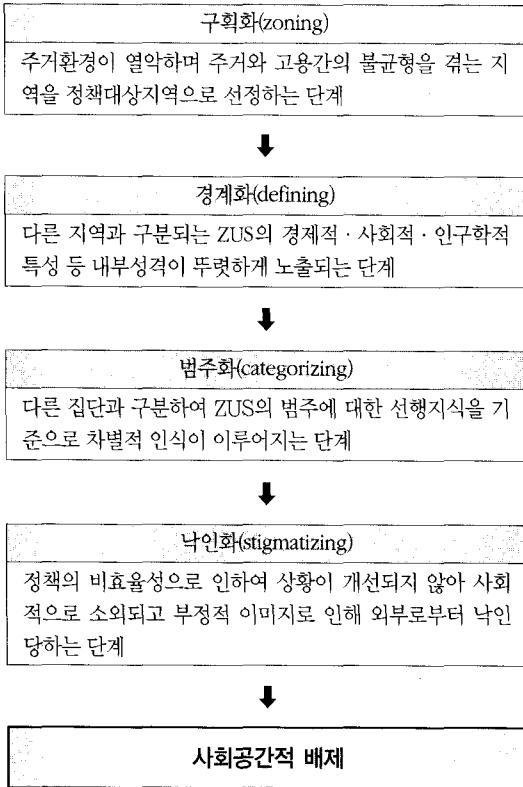


그림 8. ZUS의 사회공간적 배제 과정

은 타 지역과 ZUS를 구별 짓는 세 번째 범주화의 단계로 나타난다. 낙인화의 단계는 사회적 배제의 형성 내지 심화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로서 시행된 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외부로부터 낙인당하는 단계이다. 결과적으로 ZUS 주민들은 경제적인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사회적으로는 더욱 소외되고, 공간적으로 단절되는 사회적 배제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프랑스 정부가 ZUS지역과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다 넓은 사회로 통합시키려는 정책적 의도는 매우 긍정적이나 사회적 배제의 속성을 이미 지니고 있는 ZUS에서 정책의 효과가 미약하다면 사회적 배제를 해소시키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특정지역의 설정이라는 공간적 격리가 지니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ZUS 주민들은 공공정책을 통해서도 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은 사회적 배제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탈사회적 배제 정책이 경제적 결핍을 해결에 초점을 맞춘 빈곤정책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총체적 정책으로 나아가야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배제 정책이 배제의 과정을 끊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ZUS 거주자들의 특성을 경제적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점과 물리적 경제설정으로 인한 공간적 단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혜택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ZUS 거주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ZUS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ZUS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특히 계층간의 사회적 배제는 공간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간적 경계는 사회적 배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사회적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론으로 나타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현대 사회에서 빈곤은 경제적 결핍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소외와 연결되어 매우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사회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하여 빈곤의 새로운 해석으로 등장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빈곤의 동태적 성격과 '경제적 결핍'이 아닌 빈곤이 기제가 되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빈곤정책은 이제 한계성을 지니며 사회적 배제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빈곤정책이 의의를 가지는 시점에 와 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오랜 공론의 역사를 지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프랑스의 빈곤정책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의의와 공간적 함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빈곤을 단순히 경제적 결핍의 상태로 보기보다는 다

양한 차원의 불이익으로서 사회의 주류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사회적 배제'로 보는 관점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최근 각 나라의 법안과 정책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공식적·사회적으로 최초로 사용한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배제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1996년 도시재활성화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사회적 배제의 극복의 특별대상지역으로 ZUS를 설정하였다. ZUS는 저소득층, 이민자, 저학력자,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8.2%가 ZUS에 거주하고 있다. ZUS의 지역별 분포는 매우 불균등하여 Paris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Marseille, Lyon, Strasbourg, Bordeaux, Metz-Nancy, Lille, Nantes 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ZUS 설정 이후 다양한 경제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ZUS 주민의 성격과 경제 및 거주환경 등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프랑스도시전체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열악한 상황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민자나 편부모 및 다인가구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특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고용창출에 실패하여 높은 실업률은 계속 유지되어 ZUS 주민의 대부분은 '빈곤' 상태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은 서민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잦은 소송, 대기오염, 낙후된 시설, 주민의 비행 및 무례한 행동, 높은 범죄율 등으로 인하여 ZUS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거주지역을 불량지역으로 인지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의 향상을 통한 사회적 배제의 해소를 정책적으로 의도하였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미약하여 사회적 배제는 해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ZUS를 더욱 배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ZUS라는 특정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ZUS의 인구특성이나 거주환경의 정체성을 더욱 명백히 인식시켜 결과적으로 사회의 다른 집단으로 하여금 ZUS를 낙인찍힌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여 ZUS를 사회공간적으로 배제하고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ZUS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극복하려는 빈곤정책이 지니는 정책적 및 사회공간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의 문제로

서 거주환경이 열악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을 이룬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 및 빈곤현상의 해결 방식으로서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각종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실제로 주민의 경제적 빈곤상태를 축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배제문제 해결에 얼마만큼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물리적 공간의 문제로서 ZUS 설정의 근거가 되는 지역단위 설정과 구획화의 적절성 문제로서 오늘날과 같이 이동성이 발달한 시대에 ZUS와 ZUS의 지역간의 객관적인 경제 설정이 과연 가능한지 하는 점이다. 셋째, 사회공간적인 문제로서 ZUS 주민과 ZUS 지역에 대한 혜택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다양성을 지닌 ZUS 주민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속성이나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된 ZUS에 대한 경제적 혜택은 ZUS에서 사회적 배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공간적 과정에 초점을 둔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특정 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나 형평성의 관점에서 일견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책의 대상을 함의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특정 계층 및 지역을 특화시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계층의 적절한 통합을 통해서 자족성을 길러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정 지구의 설정은 계층의 배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의 경직성이 드러난 것이며 심각한 계층간 분리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이나 박탈 등 다양한 사회현상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해결하려는 개별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정치적 영역에 걸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배제의 상황 속에서 높은 실업률,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에 대한 낙인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ZUS의 설정은 도시정책과 주거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어 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ZUS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공간으로 이 지역에 적용된 다양한 정책적 경험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우리나라 도시의 사회적 배제와 분리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註

- 1) 빈곤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정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특정 혹은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을 빈곤과 사회적 자본 및 유대의 결핍으로 몰아가고 있는 과정과 역동성의 요소에 초점을 두는 동태적 개념이다(남기철·김진숙, 2005).
- 2) 서로 다른 역사와 제도를 가진 유럽 각 국가들이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수용하게 된 데는, 국제자본의 유동성 강화, 기업의 초국적화, 탈산업화, 고용의 불안정 및 실업의 고착화, 일부 중간노동자층의 하향 이동,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등 사회적 변화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의 양상이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을 띠면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신명호, 2004).
- 3)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1960년대 프랑스 경제기획성의 Pierre Masse의 <진보의 이익 배당>이라는 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었다(심창학, 2001).
- 4) 가시성이란 사회적 낙인이 사람들에게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 5) Silver는 대표적인 사상가와 국가별 차이를 종합하여 사회적 배제의 기제 유형을 연대(solidarity)패러다임, 분화(specialization)패러다임, 독점(monopoly)패러다임으로 분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Silver(1994, 536-544) 참조.
- 6) 빈곤의 전통적인 개념은 개인 혹은 가족의 자원의 부족과 같은 자원의 분배문제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제한된 사회적 참여나 사회적 통합, 권력부족과 같은 관계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 7) 이러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된 것은 1974년 시라크 정부의 사회부장관이었던 René Lenoir의 저서 <배제된 자, 프랑스인 열사람 중의 하나>에서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빈곤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라고 지적한데서 비롯된다(심창학, 2001).
- 8) 최저소득보장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보호를 위한 급여 제공과 이의 연제로서 편입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9) 이 법을 기초로 한 정책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기본적 접근보장, 사회적 배제의 예방, 사회적 위급에 대한 대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적절한 공동대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10) 구조적 실업은 구매력의 약화 및 이로 인한 상업기능의 쇠퇴로 이어져 지역의 경제 기반을 상실케 하였으며, 탈정치화 및 탈 노동조합화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지역의 응집력을 약화시켰고, 이는 공동체 의식의 쇠퇴로 이어져 프랑스 정부는 치안 등의 지역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 11) 도시재활성화법은 고용창출, 공공질서 보장, 학교교육의 평등, 주거개선과 다양화, 도시정책의 강화, 공공서비스의 유지 및 개선 등 6가지 목표를 지향하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구매력 감소로 인한 지역기업의 역외 유출, 실업률증가로 인한 지역 주거환경 악화, 주민의 역외 이주 및 공동화 등으로 인한 지역의 소외와 분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http://www.legifrance.gouv.fr>).
- 12) Zones Urbaines Sensibles은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중앙일보 2005년 11월 8일자, 문화일보 2006년 4월 4일자 등)에서 '도시민감지역'으로 번역하여 이미 보도한 바 있으나 번역용어가 지닐 수 있는 어의적 오류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본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되 축약하여 ZUS로 표기한다.
- 13) 종합배제지수(ISE)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Pecheux, 2004).

$$\frac{25\text{세미만인구비율} \times \text{장기실업율} \times \text{중졸이하학력자비율} \times \text{전체인구수}}{\text{지자체잠재재정능력}}$$
- 14) Zones de Redynamisation Urbaine은 도시재활성화지역으로, Zones Franches Urbaines은 도시비과세지역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각주 4)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 축약하여 ZRU와 ZFU로 표기하기로 한다.
- 15) 일반적인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ZFU 및 ZRU와 비교하여 ZUS의 설정효과는 매우 미미한데 이는 근본적으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2000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사업세 면세 혜택을 거의 제공하지 않아 ZUS에 단지 1백만 유로의 면세 혜택만 주어졌다. 둘째, ZUS와는 달리 ZRU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신규 기업의 유치가 증가하였고 기존 상업지역 및 소규모 공장의 재구조화 및 시설물의 현

대화가 이루어졌다. 셋째, ZFU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기업수가 1997년 이후 2001년 말에는 약 세 배 증가하면서 상당한 고용효과를 나타냈다. 신규 고용된 종업원의 약 30%가 ZFU 거주민으로서, 이는 당초 예상치 2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2004년 ZFU의 실업률은 ZRU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Grosdidier, 2003).

文獻

김위정, 2004,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도시연구, 9, 87-114.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1-33.

남기철 · 김진숙, 2006,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과 반배제적 실천윤리,” 사회복지연구, 26, 123-150.

박병현 · 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185-219.

박영신, 2006, “빈곤과 배제: '제3계급'의 재생산과정을 새기면서,” 사회이론, 29, 9-35.

서종균, 1997, “영구임대주택, 분리와 배제의 공간,” 도시와 빈곤, 29, 5-19.

신명호, 2004, “한국사회의 새로운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도시와 빈곤, 67, 160-170.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4, 178-208.

심창학, 2003,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국가별 비교,” 유럽연구, 18, 209-238.

윤성호, 2005a, “빈민집단의 빈곤상황과 사회적 배제의 차이,” 사회복지정책, 22, 55-82.

윤성호, 2005b, “한국노동빈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1, 149-176.

이원호, 2006, “사회적 배제의 측정과 빈곤현상의 공간적 패턴: 서울시의 사례연구,” 지리학연구, 40(3), 367-379.

하성규 · 서준익, 1998, “도시성장에 따른 주거지 분화 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4, 111-139.

홍인옥, 2005,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해결 및 사회통합방안,” 도시와 빈곤, 76, 32-60.

Allemand, S., 2006, *Entreprendre dans les quartiers sensibles*, Editions Autremets, Paris.

Amorin, M., 2002, *Images et discours sur la banlieue*, Paris, érés.

Bataille, Ph., 1997, *Le Racisme au travail*, Ed La Decouverte.

Berger, M., 2004, *Les périurbains de Paris*, CNRS Edition, Paris.

Boutang, Y-M., 2006, *La Révolte des banlieuses ou les habits nus de la République*, Editions Amsterdam, Paris.

Boyer, J-C., 2000, *Les banlieuses en France*, Armand Colin, Paris.

Damon, I., 2002, Politique de la ville et question sociale en France, in Parizot et al.(eds.), *Les Mégapoles face au défi des nouvelles inégalités?*, Flammarion, Paris.

DIV, 2004a, *Lespolitiques de la ville depuis 1977 : chronologie des dispositifs*.

DIV, 2004b, *Dénombrement communal des populations en ZUS*.

Donzelot, J., Mevel, C., and Wyverens, A., 2003, *Faire société. La politique de la ville aux Etats Unis et en France*, Seuil, Paris.

Estebe, P., 2001, Instruments et fondements de la géographie prioritaire de la politique de la ville(1982-1996), *Revue Française des Affaires Sociales*, 3, 2-13.

Fitoussi, J-P., Laurent E., et Marrice, J.(eds.), 2004, *Ségrégation urbaine et integration sociale*, CAE, Paris.

Gobillon, L. et Selod, H., 2002, Comment expliquer le chômage des banlieues? Les problèmes d'accès à l'emploi et de ségrégation résidentielle en Ile-de-France(selod.ensae.net/doc/cho0502a.pdf).

Green, H., 1999, Le 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 plus ça change, plus c'est la même chose?, *Planning Practice & Research*, 14(3), 377-384.

Green, H., Trache, H., and Blanchard, D., 2001, An experiment in french urban policy: evaluation

- andreflection on the implecation of the zones franches urbaines, *Planning Practice & Research*, 2(1), 53-66.
- Grosdidier, F., 2003, *Avis au nom de la Commission des finances, de l'économie générale, du plan sur le projet de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ville et la rénovation urbaine, Assemblée Nationale*.
- Hilfiker, D., 2002, *Urban Injustice : How Ghettos Happen*, Seven Storries Press, New York.
- Lelévrier, C., 2004, *Politique de la ville ou comment lutter contre exclusion et la ségrégation dans la ville*,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 Le Toqueux, J. L., et Moreau, J., 2002, Les zones urbaines sensibles. Forte progression du chômage entre 1990 et 1999, *INSEE Première*, 835, mars 2002.
- Levy, A., 2002, De l'îlot insalubre au quartier sensible, in Baudin, G. and Genestier, P.(eds.), *Banlieuses à problème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 Merlin, P., 1998, *Les banlieuses des villes française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 Mohan, J., 2000, Geographies of welfare and social exclus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 291-300.
- Mohan, J., 2002, Geographies of welfare and social exclusion: dimensions, consequences and method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 65-75.
- Murie, A. and Musterd, S., 2004, Social exclusion and opportunity structures in European cities and neighborhoods, *Urban Studies*, 41, 1441-1459.
- ONZUS(Observatoire National des Zones Urbaines Sensibles), 2004, *Rapport*, Edition de la DIV.
- ONZUS(Observatoire National des Zones Urbaines Sensibles), 2005, *Rapport*.
- ONZUS(Observatoire National des Zones Urbaines Sensibles), 2006, *Rapport*.
- Paulet, J-P., 2004, *Les banlieuses françaises*, Ellipses, Paris.
- Pecheux, S., 2004, *Les Zones Urbaines Sensibles, une approche statistique des critères de différenciation des quartiers prioritaires de la politique de la ville*, Mémoire de DEA, EHESS.
- Pellegrini, C., 2005, *Banlieuses en flammes*, Anne Carrière, Paris.
- Sauvadet, T., 2005, Processus de ghettoïsation et mode de socialisation, *Magazine Paris*, 8, 10-11.
- Sibley, D., 1995, *Geographies of Exclusions*, Routledge, London.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33, 531-578.
- Vieillard-Baron, H., 2001, *Les banlieuses: Des singularités mondiales*, Hachette, Paris.
- 교신: 배미애,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이메일: mabae@pusan.ac.kr, 전화: 051-510-3549)
- Correspondence: Mi-Ae Bae, Institute of Busan Geography, Pusan National University, San 30, Jangjeon-Dong, Geumjung-Gu, Busan, Korea (e-mail: mabae@pusan.ac.kr, phone: 051-510-3549)
- 최초투고일 07. 3. 1.
최종접수일 07. 3. 20.